

통일 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003 청소년상담연구 · 1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연구책임자 : 금 명 자

공동연구자 : 김 동 민

권 해 수

이 소 영

이 희 우

간행사

최근 들어 탈북자가 급증하였고,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잘 알고 있으나, 정작 일상 생활에서 그들과의 접촉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오히려 편견을 갖기 십상입니다. 좀 더 그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다고 하겠습니다. 탈북 청소년들도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반 청소년보다는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우선은 목숨을 위협하는 사선을 넘어 탈북한 것이고, 두려움과 배고픔 속에서 제 3국의 생활을 했었고, 겨우 입국한 한국은 여러 면에서 낯설고 외롭기만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와 심리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국가와 여러 NGO에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을 돕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역사가 짧고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성과 종합성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우선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되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남한청소년들의 의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계화되고 지구인이 되는 맥락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문화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이해는 이러한 문화 개방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이루어진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적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남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다문화적 개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진행된 연구는 그러한 연구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탈북청소년들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동안 열린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하는 캠프에 참여하여 학생들도 만나고 여러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늘푸른학교 윤상석 선생님, 한누리학교 정경숙 교장선생님, 다리공동체 이영석 선생님, 북한인권시민연합 유진선 선생님, 하나원 김난영 선생님, 그리고 그 외 여러 단체의 친절한 협조에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연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여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금명자 박사, 김동민 박사, 권혜수 박사, 이소영 선생님, 그리고 이희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 혜 성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이론적 배경	4
1. 국내 탈북 청소년 적응 연구 개관	4
2.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7
3. 연구의 목적과 내용	12
III. 연구 1 :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1.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과정 척도 개발	15
2.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책략과 변인별 분포	20
3. 변인별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23
IV. 연구 2 :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문화 적응 과정	
1.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 개발	25
2. 피보험자	29
3. 탈북 청소년과의 접촉 경험에 따른 문화 개방성 차이	30
V. 요약 및 결론	35
참고문헌	39
부 록	42

그림 목 차

그림 1. 문화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틀 (Berry, 2001)	9
그림 2. 집단내 문화 적응 전략	10

표 목 차

표 1. 소수 집단 정체감 발달 모델(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11
표 2.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 요인 부하량	16
표 3.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정체감과 불안, 우울과의 관계	19
표 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20
표 5.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책략 분포	22
표 6. 변인별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정체감	24
표 7.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 예비 문항	25
표 8.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의 요인 부하량	27
표 9. 조사 대상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29
표 10.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31
표 11. 성별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31
표 12. 접촉 형태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32
표 13. 접촉 기간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33
표 14. 친밀 정도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34

I. 문제 제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한국은 통일을 국가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치와 사상, 문화 아래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어 온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어려움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통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준비는 남한 주민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에게도 필요하나 그들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 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면을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국이 탈북자의 25%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숫자 파악은 정확하지 않으나 하나원의 자료에서는 1999년에서 2001년까지 20세 미만은 약 200명이고, 2002년에는 청소년반 192명, 초등반 67명, 유치반 12명, 유아반 16명으로 보고하고 있어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2002년 5월 18일자 문화일보에 ‘탈북 청소년의 문화 충격’이라는 제호 아래 남한 사회를 잘 모르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정착금은 약이 아니라 독으로서, 갑자기 생긴 뭇돈을 주체하지 못해 유흥비로 날리고 빈털털이가 되는 경우가 적잖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이 돈으로 스포츠카나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고를 내거나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도 있었다. 2002년 12월 23일자 주간조선에 실린 ‘나는 천대받는 탈북 청소년’이라는 기사에는 1994년 입국한 14세 소녀에게 한국은 절망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친구들이 놀아주지는 않고, 부모는 생활에 쫓기어 자녀를 돌볼 만큼의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16세의 한 탈북 청소년은 학교에서 적응의 일환으

로 학교의 ‘조직’에 몸을 담아 소위 ‘노는 아이’ 혹은 ‘깡패’로 생활하여 친구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기영 (2002)은 13세에서 20세 미만의 탈북 청소년 10여명을 인터뷰하여 질적 분석한 결과, 크게 다섯 가지 영역과 18개의 하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류하였다. 사회적 관계(친구관계)의 어려움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성인들과 동일한 영역이고 학업의 어려움과 부모와의 갈등 영역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겪는 어려움이다. 박선경 (1999)은 8명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 적응 실태에 대해 심층 면접하였고,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습활동 및 자기통제에 관련한 적응을 분류하였다. 장창호 (2000)도 탈북 청소년 여섯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관찰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분류, 소개하였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세 단계의 고통을 거친다. 우선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북한에 있을 때 정치적 억압을 당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일차적 고통이며, 다음으로 탈북 후 제 삼국에 있으면서 공포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생활의 고통 등이 이차적 고통에 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다. 전우택 (2000)은 마지막 단계인 입국 후의 생활을 두 개의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하나는 남한에 처음 들어온 시점부터 정부의 조사와 보호 기간을 마치고 남한의 일상생활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망명 신청 기간과 그 이후 남한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나 드디어 남한 사회에서 개인적인 삶을 시작한 이후의 기간인 정착 시기로 구분한다. 여기에 청소년들에게는 탈북과 입국의 선택과 책임에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청소년이라는 변화와 위기의 발달적 시기라는 특성, 입국 후 이전 학제와는 전혀 다른 학제에 노출되어야 하는 등이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처럼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겪는 어려움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성인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적 어려움은 탈북 청소년 적응 과정의 고유 특성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적응 대책을 구성하게 한다. 정병호, 정진경, 이종태 (2001)는 모든 탈북자들이 남

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초기 적응 양상에 따라서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초기 적응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겪은 기근으로 성장발육상의 어려움과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어떤 인지적 교육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부모교육과 상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리치료와 적응 프로그램과 학년별에 따른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들이 상호 이질적인 면을 극복하고, 각각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서로 화합하며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바,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한 심리 사회적 이해이고, 두 번째는 그 이해에 바탕한 프로그램 구성 및 성과 연구이다. 올해는 첫 번째 연구로서, 북한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서로 다른 문화에 접촉할 때 어떤 적응 형태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형성과정으로 이해하고, 남한 청소년들은 탈북 청소년들의 접촉 경험의 유무에 따라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 북한 문화의 이해의 융통성과 개방성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탈북 청소년 적응 연구 개관

분단 이후 1993년까지는 매년 10명 미만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1994년부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탈북자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성인 대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어 그들의 적응을 염려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이 겪는 문제별 연구와 대책 모색,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이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적응의 어려움 (독고순, 2001; 박미석, 이종남, 1999; 이기영, 2001; 2002; 박선경, 1999; 장창호, 2000)과 심리·정신적 문제 (이소래, 1997; 전우택, 민성길, 1996; 이기영, 2000), 그리고 가족문제 (김영수, 2000; 이기영, 성향숙, 2001)들을 다루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근거하여 주로 사회복지적 대책 (이기영, 2000; 장창호, 2000)과 교육과 적응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 (강구섭, 1999; 정병호, 정진경, 이종태, 2001)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탈북자 전체,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해가 1999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체계적 연구가 행해지기에는 짧은 시간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원이 1999년 개원하면서 하나원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인 ‘하나둘학교’에서 8주간의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그 이후 민간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대안학교와 방과후 학교, 쉼터와 그룹홈에서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나마 체계적 연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가 그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을 드러낸 연구들

이다. 박선경 (1999)은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를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미만인 초등학생 2명과 중·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한 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관계, 자기통제 영역들에 대해 반구조화 질문을 한 후 자료를 질적 분석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였다. 대체로 교사와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불안해 하는 등의 부정적 적응을 보였고 심지어 대상자 모두가 급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경험을 보고하였다. 박선경 (1999)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보다 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적응 훈련을 강조하였다.

장창호 (2000)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탈북한 지 3년 미만의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여섯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은 대체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북한에서의 경험 → 중국 등의 제 3국에서의 경험 → 입국 후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 → 거주지에서의 초기 상황과 적응 → 초기 대응에 따른 인과적 상황이다. 각 단계마다 특징적 변인이 입국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으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식량난을 들 수 있고, 제 3국에서의 경험에는 체류 기간과 가족의 유무, 나이, 성별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하나원에서의 경험에는 학습 내용, 인적 자원과 하나원의 위치와 규칙과 같은 물리적 자원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이 보이는 적응 문제는 크게 외로움과 소외감, 자신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학교, 가족, 대인관계, 언어 등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부적응 등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장창호 (2000)는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에 입소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이 지점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정책적,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안정 및 관계 프로그램, 지지 체계 프로그램들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기영 (2002)은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질적 분석하였다. 그가 분석한 자료는 세 가지 종류로 1994년 이후 입국자로서 13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심층 면접한 자료와 네 명의 자원봉사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한 간접 자료 및 자원봉사자의 가정 방문 기록부 등이며, 그 결과를 일곱 가지 범주로 나뉘어 기술하였다. 첫째는 학업의 부진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 둘째는 교사와의 관계로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지지와 관심을 보여 비교적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진학과 진로 결정에 대한 것으로 비체계적이고 비구체적이어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입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편으로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넷째는 비정규 교육 기관에서의 인간 관계 형성의 문제점으로, 이들이 북한과는 다른 교육제도 때문에 정규 학교보다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학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배려가 없어 탈북 청소년들은 비보호, 비관용적 인간관계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섯째는 친우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과 연하의 학생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현실, 남한 청소년들의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남한 청소년의 놀이문화와의 괴리 및 이들 자신의 내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섯째는 탈북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심각한 갈등이나 반항은 보이지 않으나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의 속도와 다양성에서 세대간 차이와 발달적 세대간 갈등의 면모가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적응 스트레스의 원천이 있어 그들의 남한 사회의 적응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바탕하여 이기영 (2002)은 탈북 청소년의 학업부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 강화, 그들의 적응을 지원할 민간자원의 조직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특히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남한 청소년과의 결연과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병호, 정진경, 그리고 이종태 (2001)는 탈북 학생 사회·학교 초기 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위한 학년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이 선행 연구들이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선에서 어떻게 구현, 실시되느냐와 실시 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네 개의 연구들을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영역, 대처 방안, 그리고 연구 방법의 특성들로 종합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적응의 어려움은 대체로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학업과 교육 관련 영역, 둘째는 교사, 교우, 가족 등의 인간관계 영역, 셋째는 언어, 놀이 등 문화 괴리에 관련한 영역, 그리고 발달적 특성과 일상 생활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내적인 영역이 마지막 영역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대책과 제안은 체계적인 교육과 학업체계 마련, 심리안정 프로그램의 체계적 실시 및 적응을 지원한 민간 자원의 체계적 조직으로 정리된다. 이들 연구들의 주제와 방법적 특징을 볼 때,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 자체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응의 영역을 확인하는 연구들이고 방법적으로는 10여명 내외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탈북자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살다가 남한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사회로 들어와 새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간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탈북자도 겪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적응 혹은 문화 변용(psychological acculturation)이라고 한다(여기

에서는 문화 적응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문화적응이란 뚜렷이 다른 두 개의 문화집단 간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문화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 적응은 어느 한 쪽 문화의 일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서로의 영향을 받아 둘 다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와 사는 것은 단순히 탈북자들이 북한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남한 문화를 수용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문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남한 사람들의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의미에서의 수용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자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적응해야 하는 소수 집단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의 환경에 있던 다수 집단 혹은 주류 집단 역시 새롭게 유입된 자극과 변화에 대해 변화와 적응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 청소년인 경우는 하루 생활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수 남한의 청소년들도 이들에 대한 대처적 변화가 성인보다는 체계적으로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남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열등하고 불쌍하다는 인식과 공격적, 폐쇄적 이미지 등의 부정적 인식과 나이에 비해서 조숙할 것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가 변화할 것이다.

문화 적응과 관련한 개념과 연구는 Berry의 난민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난민의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이라는 용어(Berry, 1970; Berry, 1976; Berry, 1980)와 문화 적응(accultu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Berry, 1986; Berry, 1991;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1은 Berry, Poortinga, Segall, 그리고 Dasen (2002)이 제안한 두 개의 문화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문화적응 과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개념과 요인들을 두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화는 두 문화 모두에서 나타나며 문화적 수준(집단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개인적 수

준)에서 일어난다. 또한 행동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는 문화 적응과정을 거쳐서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이 이루어진다. 이 도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된 후 개인은 심리적 문화적응 과정을 거쳐 적응에 이른다는 것과 문화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난민이나 소수 집단 뿐 아니라 주류 집단을 대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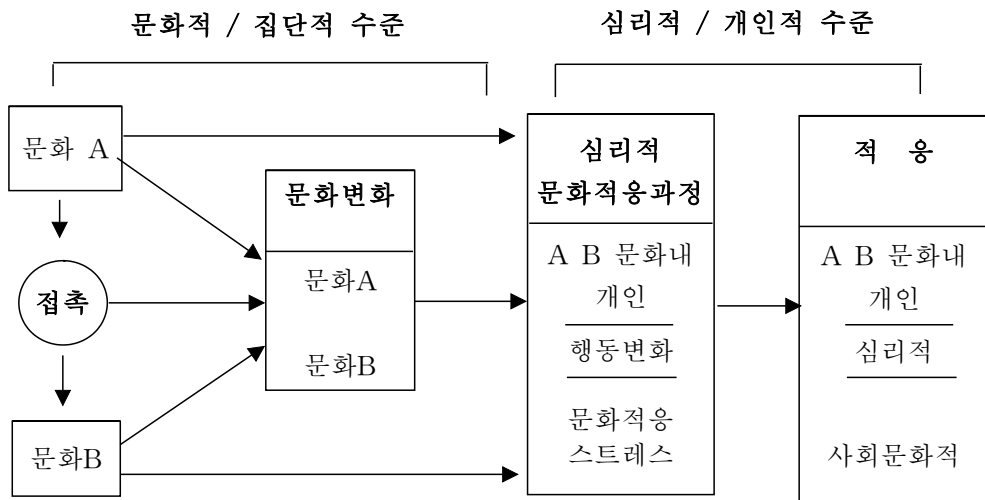


그림 1. 문화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틀 (Berry, 2001)

특히 Berry, Poortinga, Segall, 그리고 Dasen (2002)은 이 두 개의 문화가 접촉되면서 개인이 겪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네 가지 책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네 가지 책략은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이다. 이러한 책략을 구분하는 조건은 두 가지로 첫 번째 조건은 개인이 가진 상속된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상대적 선호이고, 둘째는 다른 인종 문화적 집단들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접촉하고 참여하는 상대적 선호이다. ‘동화’ 책략은 자신의 고유 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이 모두 하나의 융합 도가니에서 합쳐지고 섞여져서 새로운 하나의 존재가 되

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책략은 자신의 고유성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도 접촉을 충분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 책략은 외부 세계와 정착사회 문화에 연결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고유 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 책략은 자신의 고유 집단 그리고 새로운 정착 세계 양쪽과의 관계를 모두 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 소외 상태, 자아정체감 상실 등의 느낌을 가진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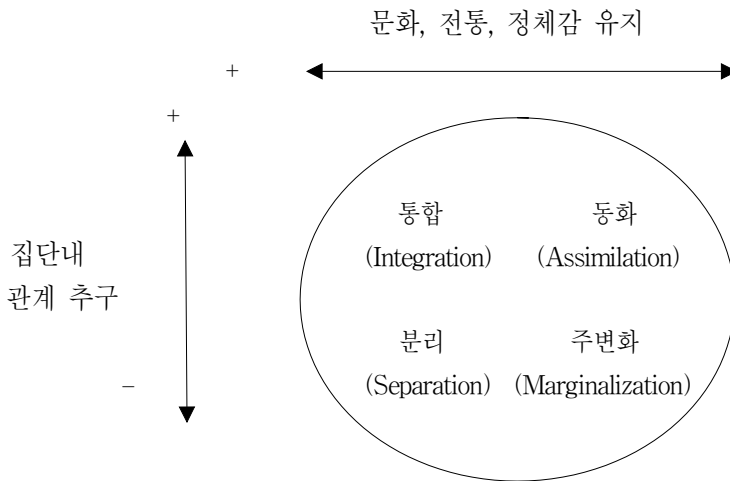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내 문화 적응 책략

한편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은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있어서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경제, 언어, 대인관계, 문화, 가치, 정서 및 기타 등 7가지 영역의 32개의 문항을 만들어 시간 경과에 따른 유학생의 문화적응 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한족 혹은 조선족에 따라 점차 적응되어 가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지, 친구가 없다는지는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크게 호전되지 않는 영역도 있었다. 전우택 (2000)도 남

한생활의 첫 6개월간의 어려움과 연구 당시의 어려움을 비교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졌다. 이기영 (2002)도 입국 후 적응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영역별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는 점점 커지면서 부정적 변화를 보이지만 남한 문화에 자신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적응 영역도 있었다.

문화 적응 과정에서 시간과 관련한 변화는 Atkinson, Morton, 그리고 Sue(1998)가 제안한 소수 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D,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표 1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1. 소수 집단 정체감 발달 모델(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MID 모델 단계	자신에 대한 태도	같은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
1단계 - 순응	자기 비하	집단 비하	차별적	높이 평가
2단계 - 불일치	자기 비하	집단내 갈등 집단비하와 높이 평가	주류문화의 소수 문화위계에 대한 관점과 공유된 경험의 감정 사이의 갈등	집단 비하와 높이 평가 사이의 갈등
3단계 - 저항과 흡수	자기를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다른 소수집단경험에 대한 공감과 자문화중심주의감정의 갈등	집단비하
4단계 - 자기반성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근거에 관한 관심	불평등한 평가의 본질에 대해 관심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인종중심적인 관심	집단비하의 근거에 대한 관심
5단계 - 통합적인 명료화와 인식	자기를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선택적인 높이 평가

출처. Atkinson, & Morton (198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p. 35.

그들은 정체감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자신에 대한 태도, 같은 소수 집단의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소수집단의 사람에 대한 태도 및 주류(다수) 집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단순 선형적 변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태도는 자기 비하에서 높은 평가로 바뀌어 가고,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는 U형으로, 높은 평가 - 비하 - 선택적 높은 평가로 변한다. 이민자들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혹은 행복 척도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수용되는 이론으로, 이민의 초기와 여러 해 경과 후에는 좋은 평가를 하는 U형이 나타난다 (Nash & Dennison, 1991).

3. 연구의 목적과 내용

양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연구 대상, 그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고 관심이 대상이 된 지 약 3년 정도라는 제한된 기간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탈북 청소년을 다룬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진전된 연구를 시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정리해본다.

첫째는 이전의 연구들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과 대상 인원의 문제이다. 대개의 연구가 심층면접과 관찰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인원은 6명에서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질적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이미 정해진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것으로, 대부분이 탈북 청소년 적응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기술하는 연구들이었다. 물론 초기의 연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기술하는 연구가 기초적으로 가치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과 적응과정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을 설명하고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이론적 틀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는 이 모든 연구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즉 소수 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증진시키는 변인으로 남한 사람 혹은 남한 청소년들의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비합리적 이해와 몰이해가 지적되는 점 (장창호, 2000; 정병호 등, 2001)을 감안해 볼 때, 통일 대비 연구에서는 주류 집단인 남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인식변화의 주요인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는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체계적 심리 적응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하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8주간의 사회적응훈련에 약간의 심리 적응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하나원 퇴소 후 홀로 생활할 때 심리 상담과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시행이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네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탈북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문화 적응 과정(acculturation)으로 이해하고,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이나 입국한 연령과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어떤 유형의 문화적 정체감을 갖는 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1) 문화 정체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 2) 다수의 탈북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3) 이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체류기간들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둘째, 남한 청소년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탈북자나 탈북 청소년들과의 교류 후에 그들과 그들 문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한 청소년들도 탈북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 적응이 어떻게, 얼마나 일어나는 지를 살핀다. 이를 위해서 1) 북한과 탈북자 등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 태도를 갖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화 정체감 척도를 개발하여, 2)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3) 이들

변인에 따른 개방성 혹은 유연성의 차이를 살핀다.

셋째, 첫째와 둘째 연구를 통해 누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 확인하여 개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첫째와 둘째는 올해 연구로 진행하고 셋째는 내년에 진행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첫째와 둘째 연구 주제에 맞추어 보고서를 기술할 것이다.

Ⅲ. 연구 1 :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1.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과정 척도 개발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초기 남한 생활을 문화 적응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의 특성을 확인하여 그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문화적응 과정을 확인하는 검사의 개발을 우선 목표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관찰과 기록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도구가 없었다. 최근에 이기영(2002)이 남한 사회에서의 인식과 행동의 정확성을 비롯한 9가지 영역 29개의 문항을 만들어 탈북자의 사회적응의 정도를 살피기도 하였으나 검사개발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 척도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그 해석의 애매함,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미비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1999)이 만들어 사용한 41개의 문항들은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문항화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제한이 있다.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그리고 김동직(2002)과 이애란(2003)은 Berry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사용하였는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개 문항 척도이다. Ahn(1999)은 미국에서 한인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적 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Lee(1991)가 아시아인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문화와 아시아 문화에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50개 문항들을 아시아 대신에 한국을 대입하여 척도를 만들었다.

1)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Ahn (1999)이 사용한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KMEI)을 번안 활용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은 KMEI를 Korea는 북한, America는 남한으로 각각 대입, 번역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비교적 그대로 번역을 하였다. 척도를 완성하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쳤는데, 일차적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몇 분의 교사들에게 내용 검토를 받아 50개의 문항 중 탈북 청소년에게 비교적 해당하지 않는 문항 8개를 탈락시키고 번안된 내용을 자문을 받았다(부록 참고). 다음 단계는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워낙 제한된 인원이고 재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연구 이전의 신뢰도 검증 과정을 생략하였다. 일단 42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자료를 수집하여 내적 타당도와 요인분석에 의해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요인분석의 eigen-value가 떨어지는 문항은 삭제하여 원자료를 정리하였다. 결과 내적 일치도는 $\alpha = .88$ 이었으며, 요인분석에서는 두 개의 확인한 요인을 찾을 수 있었고, 역점수 문항 1개와 eigen-value가 떨어지는 3개의 문항 등 모두 4개의 문항을 척도에서 삭제하였다. 그래서 척도는 모두 38개 문항으로, 요인 1은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남한 선호 정체감’ 18개 문항이며, 요인 2는 북한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북한 선호 정체감’ 20개 문항이다(표 2).

표 2.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1	요인 2
1. 나는 마음으로는 북한사람에 가깝다	-.223	.626
2.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북한사람이다	-2.952E-02	.569
3. 나는 나만에서 사용하는 표준말을 하려고 한다	.666	2.390E-02
4. 나는 정말 남한사람처럼 변했다	.341	-.207
5. 나는 남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115	.401

문 항	요인 1	요인 2
6. 나는 남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480	-.359
7. 내가 남한 사람이 되어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611	-.133
8. 나는 북한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205	.482
10. 나는 북한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재미있다	-.206	.515
11. 나는 주로 남한 노래를 많이 듣거나 부른다	.405	2.360E-02
13. 나는 북한 사람들과 있는 것이 편하다	-5.319E-02	.729
14. 나는 북한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1.283E-02	.636
15. 내 가치와 신념은 남한 사람들과 다르다	9.386E-02	.351
16. 나는 북한 사람들에 속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265	.576
18. 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	.521	-.276
19. 사람들이 북한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6.304E-02	.494
20. 나는 정말 북한 사람답다	5.431E-03	.720
21. 나는 남한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706	6.726E-02
22. 나는 북한 사람들과 쉽게 사귀다	.198	.846
23. 나는 북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228	.647
24. 나는 남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781	8.268E-02
25. 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128	.656
26. 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즐겁다	.780	-.144
27. 나는 남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608	-.173
28. 내 가치와 신념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과 비슷하다	.151	.723
29. 나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466	.267
30. 나는 종종 북한을 다룬 영화나 텔레비전을 본다	6.835E-02	.421
31.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303E-02	.603
32. 나는 마음으로는 절대 남한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5.941E-02	.357

문 항	요인 1	요인 2
33. 나는 남한 문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778	.230
34. 나는 남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829	8.633E-02
36. 나는 남한 문화의 좋은 면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716	.121
37. 남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서 멋진 일이다	.797	.167
38. 나는 남한 사람이라고 자주 생각한다	.719	2.904E-02
39. 북한 말을 계속 쓰려고 노력할 것이다	-.107	.484
40.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668	.113
41. 나는 북한 노래를 즐겨 듣거나 부른다	.117	.495
42. 나는 북한 출신이지만 남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745	9.905E-02

2) 기타 측정 도구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의 공준타당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불안과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현숙과 구본용 (2001)이 사용했던 청소년용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Reynold와 Kamphaus (1992)가 제작한 BASC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성격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총 186개 문항 중에서 지나친 걱정, 두려움, 과민함, 문제에 압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평가하는 14개 문항들을 선택하여 구성된 척도이다. 신현숙과 구본용 (2001)은 이 척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만들었고 Cronbach's α .87이었다. 우울 역시 신현숙과 구본용 (200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Reynold와 Kamphaus (1992)가 제작한 BASC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성격척도에서 13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문항들은 슬픈 기분, 불행한 느낌, 낙담, 불운하다는 생각을 평가하는 내용들이고 Cronbach's α .85였다.

문화 적응 정체감과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척도 전체와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불안과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북한 문화 정체감과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3.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정체감과 불안, 우울과의 관계

	남한	북한	전체	불안	우울
남한 문화정체감					
북한 문화정체감	-.097				
적응 전체	.683**	.661**			
불안	.328**	.241*	.424**		
우울	-.039	.268*	.167	.619**	

* $p<.05$, ** $p<.01$

3)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탈북 청소년 70명과 남한 청소년 350명으로 탈북 청소년은 다양한 기관(10개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남한 청소년들은 탈북 청소년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구분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구체적 자료는 표 5의 변인별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책략 유형 분포에 기록하였다.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 9세에서 24세까지로 학년별에 따라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9세-13세, 중학교에 해당하는 14세-16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7세-19세, 그리고 그 이상이 20세 이상 모두 네 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형태는 초, 중, 고 등 일반 공교육에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과 대안학교, 하나원의 하나돌학교 및 검정고시나 대학입학을 위해 혼자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기타 등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입국 나이는 한국에 들어 올 당시의 연령으로 역시 학년별에 따른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이는 발달 연령에 따라 적응의 예민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앞의 이론적 설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어 온 기간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국 후 조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교육이 주어지는 하나원의 하나돌학교에서의 기간 4개월과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하는 기간 1년, 2년, 그 이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1년 이하, 1년-3년, 그리고 3년 이상 등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거형태는 역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지 혹은 홀로 있는 지를 확인한 변인으로, 부모와 형제 등 일반적 가족과 함께 사는 청소년과 쉼터나 기숙사 등 동료 탈북 청소년과 집단으로 사는 형태, 혼자나 친구 한둘과 사는 형태 그리고 부모 없이 형제하고 사는 형태 등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상의 변인들은 일반적 인구학적 변인들과 문화 적응 정체감이나 적응 전략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는 변인들이다.

2.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책략과 변인별 분포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은 표 4와 같다. 남한 문화 정체감의 평균과 북한 문화 정체감의 평균의 상하로 구분하여 4개의 적응 책략 유형을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평균	표준편차
남한 문화정체감	61.22	12.39
북한 문화정체감	56.00	12.07
전 체	117.23	16.44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 정체감은 평균 이상이고 북한 문화 정체감은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집단은 ‘동화’ 전략 유형으로,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북한 문화 정체감이 동시에 평균 이상인 집단은 ‘통합’ 전략 유형, 남한 문화 정체감은 낮고 북한 문화 정체감은 높은 집단은 ‘분리’ 전략 유형, 남한 문화 정체감도 낮고 북한 문화 정체감도 낮은 집단은 ‘주변화’ 전략 유형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이들 각 전략 유형별로 각 변인들의 분포를 확인하였다(표 5).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7세에서 19세까지의 탈북 청소년들은 ‘동화’와 ‘통합’ 전략을, 20세 이상은 ‘분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성별에 따르면, 남자는 ‘동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여성은 ‘분리’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교육 형태별에 따르면 일반 공교육 체계에 있는 탈북 청소년은 ‘주변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하나원의 하나둘학교 청소년들은 ‘통합’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입국한 연령에 따라서는 0세에서 초등학교 시절까지 입국한 청소년들이 ‘주변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17세에서 19세 사이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비교적 ‘동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동화’와 ‘통합’ 전략을 사용하였다. 입국 후 하나원 시절 정도 4개월 간 노출된 청소년들은 주로 ‘통합’과 ‘동화’ 전략을 보였으나, 하나원을 나온 후 홀로 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청소년들은 ‘분리’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2년 정도 지난 청소년들은 ‘주변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에 거주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들은 ‘통합’ 전략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 후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청소년들은 ‘동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1년-3년인 청소년들은 ‘통합’ 전략을 사용하였고, 3년 이상이 청소년들은 ‘동화’ 전략을 약간 많아 보였지만, 네 개의 전략을 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동거 형태로 살아보았을 때,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동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쉼터와 기숙사 등 보호시설에 동료들과 여럿이 살 때에는 ‘분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홀로 살거나 형제하고만 살 때에는 ‘통합’ 전략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술적 차이는 각 정체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의 수준별로 변량분석한 결과인 표 5에서 더욱 인과적으로 설명된다.

표 5.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전략 분포

		동화형	통합형	분리형	주변화형	전체
		20명	19명	17명	14명	70명
연령	9 ~ 13세	1명	0명	2명	3명	6명
	14 ~ 16세	5명	4명	2명	3명	14명
	17 ~ 19세	9명	11명	5명	4명	29명
	20세 이상	5명	4명	8명	4명	21명
성별	남	13명	10명	6명	11명	40명
	여	7명	9명	11명	3명	30명
교육형태	일반공교육	6명	4명	6명	10명	26명
	대안학교	5명	3명	6명	1명	15명
	하나원	5명	9명	1명	1명	16명
	기타	4명	3명	4명	2명	13명
입국나이	0 ~ 13세	1명	1명	2명	5명	9명
	14 ~ 16세	6명	6명	3명	3명	18명
	17 ~ 19세	10명	8명	7명	3명	28명
	20세 이상	3명	4명	5명	3명	15명
입국후 기간	4개월 미만	6명	10명	1명	2명	19명
	4 ~ 16개월 (1년)	5명	2명	8명	5명	20명
	17 ~ 28개월 (2년)	5명	1명	3명	6명	15명
	29개월 이상	4명	6명	5명	1명	16명
제3국 체류기간	1년 이하	6명	2명	2명	4명	14명
	1 ~ 3년	6명	12명	8명	5명	31명
	3년 이상	8명	5명	7명	5명	25명
동거형태	가족	13명	9명	9명	7명	38명
	보호시설	5명	3명	8명	6명	22명
	혼자(무연고)	1명	4명	0명	1명	6명
	형제(부모없음)	1명	3명	0명	0명	4명

3. 변인별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표 6은 각 변인별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정체감과 변인의 수준에 따른 차별성을 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연령, 성별 및 제 삼국의 체류 기간에서는 수준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 형태에 따라서는 문화 적응 정체감에 차이가 있었는데 초, 중, 고등 일반 공교육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북한 문화 정체감 그리고 문화 적응 정체감 총점수 모두에서 가장 낮았으며, 하나원 시절에는 남한 문화 정체감이 높았으며, 대안학교와 학원 등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는 북한 문화 정체감이 높았다. 결국 공교육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분리와 주변화 등 적응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입국한 연령은 남한 문화 정체감에 주효과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 이하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다. 입국 후 적응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가와 관련해서는 하나원 시절과 2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정체감이 높았고 1년에서 2년된 청소년들은 낮았다. 반면 북한 문화 정체감에서 있어서는 하나원 시절에 가장 낮고 1년 경과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다. 두 정체감과 기간을 연결해 볼 때 하나원 시절은 동화, 1년-2년 경과한 청소년들은 분리 및 주변화를 2년 이상인 청소년들은 다시 동화 혹은 통합으로 전략이 변화한다고 하겠다. 동거형태로 살필 때 혼자 있거나 형제와 있을 때 강력한 동화 전략이 나타난다. 쉼터 등 보호시설에 동료 탈북 청소년들과 있을 때에는 통합 혹은 분리 전략을 쓰는데 이는 북한 문화 정체감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표 6. 변인별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정체감

	변인	빈도 (명)	남한문화정체감		북한문화정체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9 ~ 13세	6	54.33	5.82	55.83	9.67	110.17	14.30
	14 ~ 16세	14	59.07	15.31	55.14	14.77	114.21	24.31
	17 ~ 19세	29	6.32	11.85	55.52	11.53	119.13	14.01
	20세 이상	21	61.33	12.12	57.29	12.19	118.62	13.92
	<i>F</i>			1.126		.114		.697
성별	남	30	60.63	12.60	56.60	10.96	117.23	16.65
	여	40	62.03	12.29	55.20	13.57	117.23	16.45
	<i>F</i>			0.219		.228		.000
교육형태	일반공교육	26	54.27	14.35	54.50	11.53	108.77	22.04
	대안학교	15	6.27	9.72	61.00	12.92	124.27	11.10
	하나원	16	70.38	7.23	50.13	13.53	120.50	9.05
	기타	13	61.54	7.59	60.46	5.77	120.00	6.39
	<i>F</i>			7.367***		3.108*		4.335**
입국나이	0 ~ 13세	9	49.44	13.32	52.56	15.91	102.00	24.11
	14 ~ 16세	18	61.28	13.11	55.56	10.19	116.83	18.97
	17 ~ 19세	28	64.54	9.53	58.29	11.53	112.82	8.71
	20세 이상	15	62.07	12.67	54.33	13.02	116.40	14.30
	<i>F</i>			3.812*		.673		4.176**
입국후 기간	4개월 이하	19	70.32	7.78	49.32	13.90	119.63	9.97
	5~ 16개월	20	57.30	12.68	59.65	11.70	116.95	20.69
	17~ 28개월	15	52.53	11.84	56.47	10.30	109.00	20.56
	29개월 이상	16	63.50	9.68	58.94	9.07	122.44	9.16
	<i>F</i>			9.060***		3.143*		2.009
체류기간	1년 이하	14	60.29	13.94	56.00	12.82	116.29	24.48
	1~ 3년	31	62.94	12.65	54.10	12.22	117.03	15.32
	3년 이상	25	59.64	11.39	58.36	11.52	118.00	12.26
	<i>F</i>			.532		.860		.051
동거형태	가족	38	61.05	10.61	56.66	9.47	117.71	15.94
	보호시설	22	57.32	13.48	59.68	13.07	117.00	18.18
	혼자(무연고)	6	67.17	13.70	49.00	9.63	116.17	20.35
	형제(부모없음)	4	75.50	10.47	40.00	18.71	115.50	8.43
	<i>F</i>			3.246*		4.265**		.034

* $p < .05$, ** $p < .01$

IV. 연구 2 :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문화 적응 과정

1.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 개발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남한 청소년의 개방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개방성 척도를 개발하고, 탈북 청소년과 접촉 경험에 따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및 유연성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1) 예비 문항 선정

남한 청소년의 북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 척도 역시 Ahn (1999)이 사용한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KMEI)을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나, KMEI 중 주류문화에 대한 내용까지도 북한 문화와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 관계에 대한 관심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바꾸어 2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 예비 문항

1	나는 마음으로 북한 사람이 가깝게 느껴진다
2	나의 친한 친구 중에 북한 친구가 있다
3	나는 북한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 한 적이 있다
4	나는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5	나는 북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6	내가 북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7	나는 북한 문화도 훌륭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있다
9	나는 북한 노래 (예, 휘파람, 반갑습니다)를 흥겹게 따라 부르곤 한다
10	나는 남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11	나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12	나는 북한의 전통도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13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14	나는 북한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나 영화를 보기도 한다
15	나는 사람들이 북한 문화를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16	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도 어색하지 않다
17	나는 북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18	나는 북한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
19	나는 북한 사람들을 좋게 생각한다
20	나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즐겁다
21	나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고 한다
22	나는 마음으로 북한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23	나는 북한 사람들과 더 많이 사귀고 싶다
24	내가 북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25	나는 북한 문화의 좋은 면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26	북한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은 나에게 멋진 일이다
27	나와 북한 사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28	나는 북한 사람들을 잘 대해 주고 싶다

2) 요인 분석 및 명칭 부여

탈북 청소년에 대한 남한 청소년의 개방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28개 예비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 개방성 및 유연성 척도의 검사 요인으로서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scree test)의 결과를 고려하였다.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Varimax 방식으로 사각 회전하였다. 28개 문항 중에서 eigen-value가 낮은 두 개의 문항(3번, 22번)을 삭제하여 2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 = .96$ 이었다.

표 8. 남한 청소년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 척도의 요인 부하량

	1요인	2요인
27 나는 마음으로 북한 사람이 가깝게 느껴진다	.45	.55
28 나의 친한 친구 중에 북한 친구가 있다	-3.16E-02	.61
30 나는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59	.41
31 나는 북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25	.74
32 내가 북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36	.67
33 나는 북한 문화도 훌륭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72	.16
34 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있다	.37	.61
35 나는 북한 노래를 흥겹게 따라 부르곤 한다	.48	.16
36 나는 남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65	.27
37 나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45	.63
38 나는 북한의 전통도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74	.15
39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54	.30
40 나는 북한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나 영화를 보기도 한다	.57	.12
41 나는 사람들이 북한 문화를 존중해주었으면 한다	.76	.19
42 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도 어색하지 않다	.22	.73

	1요인	2요인
43 나는 북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22	.81
44 나는 북한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	.42	.57
45 나는 북한 사람들을 좋게 생각한다	.65	.46
46 나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즐겁다	.36	.76
47 나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고 한다	.61	.41
49 나는 북한 사람들과 더 많이 사귀고 싶다	.54	.49
50 내가 북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32	.60
51 나는 북한 문화의 좋은 면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71	.26
52 북한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은 나에게 멋진 일이다	.48	.59
53 나와 북한 사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63	.40
54 나는 북한 사람들을 잘 대해 주고 싶다	.60	.37
고유치	12.15	1.81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 개방성 척도의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요인 2에 속하는 13개 문항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의 친한 친구 중에 북한 친구가 있다’, ‘나는 북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내가 북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있다’ 등으로 실제 북한 사람과의 접촉 경험을 행동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요인 1을 ‘행동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13개 문항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는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나는 북한 문화도 훌륭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은 크게 나와 다르지 않다’, ‘나는 북한 사람들과 더 많이 사귀고 싶다’ 등으로 북한 사람들과 북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관계에 대한 기대 등을 표현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요인 2를 ‘인지·정서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2. 피험자

본 연구 대상으로 삼은 350명의 남한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과 동학교 혹은 동학급에 다니는 청소년 112명,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캠프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67명, 탈북청소년과 직접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학교 171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학생 171명, 남학생 73명, 중학생 187명, 고등학생 57명이었다.

표 9. 조사 대상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여 자	129명	77명	206명
남 자	97명	47명	144명
계	226명	124명	350명

전체 350명 중에서 탈북청소년들과의 접촉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의 37.4%(131명)가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과 접촉 경험이 있는 131명을 대상으로 접촉 형태를 살펴본 결과, ‘같은 동네에 산다’ 2.3%(6명), ‘같은 학교에 다닌다’ 35.1%(46명), ‘같은 학급에 있다’ 42%(55명),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프에서 만난 적이 있다’ 9.2%(12명), ‘복지관 혹은 상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1.5%(1명), 기타 11.5%(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과 접촉한 기간은 ‘1개월 미만’ 17.6%(23명), ‘1~3개월’ 13.0%(17명), ‘4~6개월’ 16.0%(21명), ‘6개월~1년’ 29.0%(38명), ‘1년~2년’ 16.0%(21명), ‘2년 이상’ 8.4%(11명)으로 평균 3.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탈북 청소년과의 친밀 정도를 살펴보면, ‘이름만 아는 사이’ 15.3%(20명),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 38.2%(50명), ‘가끔 어울리는 사이’

20.6%(27명),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 11.5%(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 청소년 응답자 350명을 대상으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관계 개방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같은 동네에 살아도 좋을 것 같다’ 42.6%(149명), ‘같은 학교에 다녀도 좋을 것 같다’ 43.4%(152명), ‘같은 직장에 다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13.7%(48명), ‘기회가 생겨서 친한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45.7%(160명), ‘사랑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13.4%(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탈북 청소년과의 접촉 경험에 따른 문화 개방성 차이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과의 접촉 경험에 따라 문화 개방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접촉 경험 유무, 접촉 형태, 접촉 빈도, 친밀도에 따른 개방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1)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문화 개방성 차이

북한 청소년들과의 접촉 경험에 따라 남한 청소년들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문화 개방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 총점과 행동적 개방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탈북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행동 면에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지·정서적 개방성에서는 접촉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행동적 개방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내에서 통일 교육과 정부의 햇볕 정책의 결과로 인해 탈북 청소년 및 북한 문화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접촉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문화 개방성 총점	있다	131	75.95	18.61	12.56***
	없다	219	68.70	18.45	
행동적 개방성	있다	131	36.89	10.23	36.25***
	없다	219	30.48	9.23	
인지·정서적 개방성	있다	131	39.05	9.09	.59
	없다	219	38.21	10.38	

*** $p < .001$

2) 성별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탈북 청소년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89명의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성별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문화 개방성 총점	여자	206	68.91	18.19	9.06**
	남자	144	74.99	19.16	
행동적 개방성	여자	206	31.64	9.47	7.84**
	남자	144	34.68	10.69	
인지/정서적 개방성	여자	206	37.27	9.29	8.14**
	남자	144	40.31	9.83	

** $p < .01$

표 11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과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 총점과 행동적 개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 총점, 행동적 개방성 영역, 그리고 인지·정서적 개방성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탈북 청소년들을 알고 지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움과 친숙함,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접촉 형태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탈북 청소년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131명의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접촉 형태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접촉형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문화 개방성 총점	같은학교	46	80.40	16.69	5.52***
	같은반	55	71.87	18.58	
	캠프참석	12	91.67	14.69	
행동적 개방성	같은학교	46	39.63	9.83	6.12***
	같은반	55	34.71	9.71	
	캠프참석	12	45.08	7.64	
인지/정서적 개방성	같은학교	46	40.76	7.69	4.56**
	같은반	55	37.16	9.46	
	캠프참석	12	46.58	7.57	

** $p < .01$, *** $p < .001$

표 12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과 접촉 경험이 있는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촉 형태에 따른 문화개방성의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접촉 형태에 따라 북한 문화 개방성 총점, 행동적 개방성 및 인지·정서적 개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석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오랫동안 같은 학급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의 경우, 며칠

간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 혹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문화 개방성 총 점뿐만 아니라 행동적 개방성과 인지·정서적 개방성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이다.

4) 접촉 기간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탈북 청소년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130명의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촉 기간에 따른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접촉 기간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접촉 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북한 문화 개방성	3개월 이하	40	72.80	18.86	2.64
	4개월~1년	59	74.64	17.68	
	1년 이상	32	82.28	19.05	
행동적 개방성	3개월 이하	40	34.60	10.14	4.14*
	4개월~1년	59	36.14	9.37	
	1년 이상	32	41.16	10.89	
인지·정서적 개방성	3개월 이하	40	38.20	9.34	1.13
	4개월~1년	59	38.51	9.01	
	1년 이상	32	41.13	8.93	

* $p < .05$

표 13에 의하면, 접촉 기간에 따른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접촉 기간이 길수록 행동적 개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문화 개방성 척도의 총점과 인지·정서적 개방성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접촉 기간이 길수록 행동적 개방성, 인지·정서적 개방성, 전체 총점에서 점수가 차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한 청소년들도 탈북 청

소년들과 접촉한 초기에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들 문화를 존중하고, 존재를 인정해주며, 친해지는 과정을 밟는 것을 알 수 있다.

5) 친밀 정도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탈북 청소년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89명의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밀 정도 따른 북한에 대한 문화 개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4과 같다.

표 14. 친밀 정도에 따른 문화 개방성 척도 점수의 차이

	친밀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북한 문화 개방성	이름만 앎	20	63.25	18.60	9.71***
	인사를 나눔	50	73.72	15.01	
	가끔 어울림	27	86.74	18.04	
	자주 연락, 친함	15	90.06	10.25	
행동적 개방성	이름만 앎	20	29.55	9.66	12.89***
	인사를 나눔	50	35.24	7.66	
	가끔 어울림	27	43.00	9.59	
	자주 연락, 친함	15	46.53	6.41	
인지/정서적 개방성	이름만 앎	20	33.70	10.01	5.75**
	인사를 나눔	50	38.48	8.02	
	가끔 어울림	27	43.74	8.97	
	자주 연락, 친함	15	43.53	4.53	

** $p < .01$, *** $p < .001$

표 14에 의하면, 친밀 정도에 따른 문화 개방성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밀 정도가 강할수록 북한 문화 개방성, 행동적 개방성 및 인지·정서적 개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높은 점수를 보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통일 대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탈북 청소년 70명과 남한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탈북 청소년은 문화 적응정체감과 적응 전략을, 남한 청소년은 북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청소년들은 성별, 연령, 입국한 연령, 제 삼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거 형태 그리고 입국 후 거주 기간에 따라 문화 적응 전략과 문화 적응 정체감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입국 후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서 문화 적응 전략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원 시절인 4개월 이하의 탈북 청소년들은 ‘통합’과 ‘동화’ 전략을, 보호 기간이 끝난 후 혼자 살기 시작한 후 1년 동안에는 ‘분리’ 전략을, 1-2년 사이에는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였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합’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MID모델에서 제시한 것처럼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도 U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문화 적응 정체감 정도는 입국 후 탈북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 형태, 입국 후 기간, 동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초·중·고등학교 등 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 적응 정체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들은 남한 문화정체감과 북한 문화정체감 모두에서 낮은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 적응에서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적응 스트레스 또한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거 형태와 관련하여서도 부모와 형제 등 비교적 안정적 가정 형태에서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동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쉼터나 기숙사 등 탈북 청소년

들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 문화 정체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리’ 책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남한 청소년의 북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요인 분석 결과 행동적 개방성과 인지·정서적 개방성이라는 2개의 요인을 분류되었다. 탈북 청소년과 접촉 경험이 있는 남한 청소년의 경우 행동적 개방성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인지·정서적 개방성에서는 접촉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탈북 청소년들과의 접촉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에서 동일 교육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탈북자 혹은 북한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탈북 청소년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접촉 형태, 접촉 기간, 친밀 정도에 따른 개방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사회단체에서 주관한 캠프에 참여한 경우, 접촉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탈북 청소년과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탈북 청소년 혹은 북한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북 청소년과 같은 학급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청소년의 경우 개방성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의 적응 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상의 결과 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의 적응 유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Atkinson과 Morton(1988)이 MID 모델로 지적하였듯이 처음에는 새로 유입된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던 태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심과 심지어 적대감까지 나타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양 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영역과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된 적응 정체감을 갖게 된다. 탈북 청소년들도 문화 적응 유형이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하나원이라는 보호 기간 시절에는 일단 새로운 문화의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화’ 책략이 필요할 것이고 적응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후의 1년 기간은 새로운 생활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경험할 것이

고, 아직까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전의 알고 있던 친구들과의 교류로 지지를 얻기 때문에 이전 문화의 정체감으로 회귀하는 ‘분리’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질 문화와 함께 온 친구도 역시 적응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돌봐주거나 좋은 정보를 주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적응자는 옛 친구에게서도 새로운 문화에게서도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두 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주변화’ 전략을 경험한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활 경험에 의해 새로운 적응자는 점차 적응을 하게 되는 데 두 문화를 선택적으로 자신의 적응에 활용하는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이다. 귀국 후 1~2년 사이는 청소년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시간의 흐름과 경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 개입으로 이들의 적응 전략과 정체감을 보다 적응에 유리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정서적 지지망과 정보망을 경험하면 ‘분리’ 전략과 ‘주변화’ 전략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규 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이다. 다시 말해 ‘주변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새로운 문화에서도 그리고 이전의 문화에서도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대개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최근 한국의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참작할 때 역시 가능한 결과이다. 새로운 문화에 유입된 적응자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그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진다면 새로운 적응자에게도, 주류 집단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적응자보다는 주류 집단의 수용 태도에 더 관련되어 보인다. 새롭게 적응하는 자에게도 적응 전략을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류 집단, 다시 말해서 남한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고 탈북 청소년을 수용하는 훈련이 미리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 정체감 척도,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개방성 척도를 개발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양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는 차후년도에 있을 통일 대비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남한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 남한에 거주한 지 1, 2년 경과한 후 적응 과정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 가정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적응 수준이 가장 떨어지고, 일반 학교에서 탈북 청소년을 접촉하는 경우 개방성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먼저 남한 청소년들에게 탈북 청소년을 받아들이고,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프로그램 내용에서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 개발 과정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의 거주지가 서울, 경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국에 분포된 다양한 형태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구섭 (1999).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모형 개발. 민족발전연구, 3, 87-121. 중앙대학교.
- 김영수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서강대학교.
-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적응 유형연구. 민족발전연구, 5, 24-40. 중앙대학교.
- 문화일보 (2002. 5. 18). 탈북 청소년의 문화충격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17, 3-74.
- 박경애, 이호준, 김택호 (1995). 귀국청소년의 적응력 향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선경 (1999).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 이기영 (2000). 탈북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건강과 사회사업, 8, 161-176.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243-271.
- 이소래 (1997). 남한 이주 북한이탈 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에란 (2003).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행동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 심리적 문화적응전략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 (1999).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6.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전우택, 민성길 (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병호, 정진경, 이종태 (2001). 탈북 학생 사회,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주간조선 (2002. 12. 23). 나는 천대받는 탈북 청소년.
-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전략 척도 개발.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85-94.
-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8.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Ahn, H.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Berry, J. W. (1970). Marginality, stress and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ing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239-252.
- _____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 _____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s.),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 _____ (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 behavior. In Williams, C. L., & Westermeyer, J. (Eds.)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pp.25-37).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_____ (1991). Manag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oblem pre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MH.
- _____ (1998). Acculturative Stress. In Organista, P., Chun, K., & Marin, G. (Eds.). *Readings in Ethnic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F. Y. (1991). *The relationship of ethnic identity to social support, self-esteem,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Nash, & Dennison (1991). The course of Sojourner adaptation: A new test of the U-curve hypothesis. *Human Organization*, 50(3), 283.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부록 1. 탈북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탈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나원을 중심으로 한 통일부, 탈북주민 후원회 형식으로 구성된 협회 등의 후원회 프로그램, 학교의 형식으로 검정고시 등 학력을 인정받는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학교 형태 프로그램, 지역 사회에서 탈북 청소년에게 학업, 인성, 사회성 훈련을 제공하는 복지관 프로그램, 기숙 형태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남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 통일부 프로그램 : 통일부 인도지원국, 하나원
- * 협회 프로그램 :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 * 학교 프로그램 : 늘푸른학교, 한누리학교, 하나둘학교, 피난처통일학교, 하늘꿈학교
- * 복지관 프로그램 :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한빛복지관
- * 공동체 프로그램 : 다리공동체, 마자렐로센타

1. 통일부 프로그램

1) 통일부 인도지원국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 고용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2년간)을 지급하는 취업보호제 등을 실시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장기적인 자립·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가. 주거 지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연령·세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 임대액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우선받을 수 있다.

나. 직업 훈련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취업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통 편의를 고려, 가능한 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직업 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직업 훈련을 권장하는 것은 훈련 이수 중 또는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동 자격에 상응한 남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교육 지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만 25세 미만인 자 및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는 만 35세 미만인 자(지원 기간은 편입학후 4년, 단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통은 6년)에 한하여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마. 생활 보호

바. 의료 보호

- 사. 취업 보호제
- 아. 생업 지원
- 자. 노령 연금 특례 적용

2)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가. 정서. 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

- 탈북. 제3국 은신·도피생활중 어려움 및 입국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불안
 - 인성, 적성검사를 통한 개별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 순화프로그램 운영

나. 문화적 이질감 해소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
 -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 교육·현장 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 실시

다. 진로 지도 및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직업 훈련 강화

-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전기간 동안 진로 지도 필요
 -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 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

2. 협회 프로그램

1)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

1997년 8월 1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음.

가. 사회적응 지원사업

생활 곤란자 지원, 북한 이탈주민 친목단체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탈북학생 장학금 지급, 취업 지원, 애경사 지원

나. 결연 및 해외지원사업

자매 결연 주선, 해외 탈북자에 대한 간접 지원, 기타 해외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다. 홍보 및 기금 사업

소식지 및 홍보책자 발간, 여러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라. 각종 캠페인 활동, 후원회원을 통한 기금조성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구심점 : 국내외 관련 NGO에 협력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사무국 역할

마. 종합생활상담센터 운영

취업/대인관계/심리/법률 등 생활 전반 상담, 북한이탈주민 1:1 상담, 사이버상담실 운영

2) 북한인권시민연합

1996년 5월 인권운동가, 지식인, 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시민단체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고통받는 북한 난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1999년 3월부터 북한이탈주민돕기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하나원과 탈북청소년의 가정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재학 9명, 중·고등학교 재학 14명,검정고시 11명, 대학교 재학 3명, 기타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가정 방문 학습 지도

탈북인 중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2시간~3시간동안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1) 학습지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컴퓨터, 기타 취약과목을 지도한다.

2) 상담활동

- 학생 상담 : 남한의 학교에 재학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각종 고민(진학/진로문제, 친구/이성문제,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부모 상담 : 탈북아동·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3) 슈퍼비전(supervision)참석 : 3개월에 1회 실시하는 슈퍼비전에 참석해 다른 자원봉사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에 대한 조언 및 교육을 받는다.

나. 하나원 토요일방문

경기도 안성 소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교육생(아동·청소년)에게 인성과 감성 및 관계형성 등의 부분을 중점으로 계발시켜주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익히고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반 활동내용>

- 미술 및 공작 활동 : 그리기, 지점토공예, 만들기 등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
- 비디오 시청 : 아이들과 친숙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언어 교정을 돕고, 하나원 퇴소 후 또래 집단의 문화를 미리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체육대회
- 간식만들기 : 불과 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간식 만들기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청소년반 활동내용>

- 남북 교육제도 비교 : 남북한의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하나원 퇴소후의 진로에 대해 상담한다.
- 선배 탈북 동포와의 대화 시간 :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들을 통하여 남한 사회 정착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이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체육 활동 : 축구, 농구, 족구 등 매주하며, 한 기수에 한 번씩은 체육대회도 개최한다.
- 비디오 시청 및 토론 : 여러 장르의 비디오를 시청하여 시각을 넓히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발표력을 향상시켜준다.

<홈스테이 활동내용>

하나원에 있는 탈북청소년이 남한청소년의 가정에 1박2일 머물면서 남한가정의 문화를 익히며, 또래집단과의 공감대 형성을 돕고 있다.

다. 하나되는 나들이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받고 있는 탈북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고궁,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놀이동산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영화관람, 과학관, 고궁, 아이스링크, 놀이동산 등 방문
- 감상문, 소감문 작성

라. 한겨레 계절학교

기초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산업체 견학, 사적지 탐방 등을 실시한다.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기초생활예절 및 질서 교육과 학생 자치회 구성 및 활동
- 심성지도 :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실시
- 야외수업

3. 학교 프로그램

1) 늘푸른학교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립생활교육 공동체이다. 200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총17명이 졸업하였고, 이들은 각자의 취학, 취업 준비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함께 생활하였다.

(1) 학습지도·진로교육

- 상담·적성검사 : 전문교사와 학업 및 현장 체험 학습 계획 수립
- 길잡이(mentor)-제자(mentee)관계 맺음 : 직업 윤리, 생활관리 등 적응의 길잡이가 될 현장 전문가와 학생의 만남 주선.
- 고시학원·직업학원·특기학원 수강 : 진로와 관련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교육 시설 및 서울시 교육문화 자원 활용

- 아르바이트 경험하기, 직업탐방, 개별 과외 공부 등

(2) 생활문화 익히기

- 자립 생활 훈련 : 돈 관리하고 돈 쓰는 방법 익히기, 시장보기, 취사요리, 세탁, 청소 등 살림하기, 손님초대 대접하기 등 실생활 문화 체험
- 사회 문화 탐방 : 관공서·은행·병원·부동산 등 생활관련기관 활용, 현장학습 (DMZ견학, 동대문시장 쇼핑, 대학탐방 등)
- 함께 사는 법 익히기 : 지역주민모임 참가, 자기역할 정하고 책임지기, 매주 총화와 통화하기, 갈등 해소하는 방법 찾기.

(3) 특기·취미 만들기

- 강북청소년 수련관 난나센타 프로그램 : 헬스, 수영, 암벽타기, 컴퓨터, 악기연주 등 다양한 취미 동아리 활동 참여
- 잘 노는 연습 : 각종 캠프참가, 공연관람, 종교활동, 멍하게 있기, 등산, 동·식물 키우기, 혼자서 여행하기 등

(4) 심리치료

- 집단미술치료, 개별심리치료 : 마음열기, 심리적 상흔 치유
- 청소년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사들의 부모 역할, 지속적인 상담

2) 한누리학교

탈북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으로써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부족한 학습을 위한 공부방,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교실 등이 있는 터전이다. 초·중학교 학생이 약 20명이 있고 상근교사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다.

(1) 공부방 학습프로그램

학년별, 수준별로 5개의 모듈로 나누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매일 1시간 30분의 정규수업을 요일별로 돌아가며 수업한다. 공부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학습의욕이 떨어져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주면서 집중 지도를 하고 있다.

(2) 한누리 상담실

대부분의 탈북아동·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이별, 사별, 학대 등을 경험하거나 탈북과정에서 끊임없는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방법은 놀이치료사 2명이 주 1회 개별상담, 집단지도, 부모상담 등을 하고 있다.

(3) 바깥 나들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나들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규칙과 자기 절제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4) 지역과의 연계 사업

학생들의 주거지가 한누리학교의 인접지역인 것을 이용하여 지역의 여러 다양한 사업과 연결하여 실행 중에 있다.

- 신월6동 동사무소 ‘문화의 집’ 공간 활용 및 행정적 도움
- 금옥중학교 사회교육부와의 연계 : 전 교사 대상 ‘통일 연수’ 실시, 학부모 통일 교육 강연, 바자회 행사.
- 김진국 축구교실 : 남학생 축구 동아리 결성.

3) 하나둘학교

늘어가는 탈북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응교육, 통일교육, 대안교육의 틀을 모색하고 한국의 교육 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유치반 교육 활동>

(1) 마음풀기

- 요가하기
- 옛이야기 듣기
- 텃밭 가꾸기
- 동물 키우기
- 풍물 배우기

(2) 나들이 활동

- 일상적인 나들이를 통하여 자연이 주는 고마움과 기다림의 소중함을 배운다.
- 우리동네 나들이 : 시장, 우체국, 도서관, 은행 등 주변의 생활에 대해 경험하게 한다.
- 남한 어린이집 방문하기 :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하여 또래 관계를 폭넓게 하고 남한의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한글교육

남한사회의 빠른 적응과 남북한 언어차이 극복을 위한 한글 교육을 실시한다.

(4) 색

교육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바다색, 피색, 하늘색, 풀색 등 몇가지 색에만 한정되어 있고 미술용어와 혼합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해봄으로써 배울 수 있다.

(5) 미술활동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고 창의성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6) 생활교육

차례지키기, 정리정돈하기, 약속지키기 등 기초적인 생활 교육을 놀이를 통해 배운다.

<초등반 방과후 활동>

8주동안의 단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여 학습의욕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또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교우관계의 갈등 해결책을 찾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간다.

- 1)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
- 2) 놀이치료
- 3) 부모면담
- 4) 현장학습

<청소년반 교육 활동>

(1)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 정서 순화 및 심리 안정 : 학급활동, 음악, 생활체육, 심성수련활동, 연극(역할극)활동
- 상담 활동 : 성교육 및 상담

(2) 학습능력 배양

- 학교 기초 교육 : 영어, 수학, 국어, 한문, 과학, 역사, 사회 등
- 전산 교육 : 한글타자연습, 한글 97, 인터넷

(3) 사회적응능력 배양

- 특별프로그램 : 영상수업, 요리실습
- 현장학습 : 계룡산 등반, 도시현장체험 및 수련회, 무연고청소년 위탁기관 탐방, 여가활용 체험 답사
- 기타 : 학생자치활동, 진로직업교육

4) 피난처 통일학교

국제 기독교 자원활동가 모임 ‘피난처’가 통일 활동의 하나로써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한 비정치, 비영리 교육공동체이다. 대상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현재 등록학생은 모두 22명이다.

가. 학습지도

- 1) 기초영어 : 기본적인 실질적인 문법, 회화 학습
- 2) 중급영어 :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언어학습
- 3) 중국어 : 탈북인들은 주로 회화위주로 습득하였으므로, 문법과 고급중국어를 배워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

나. 일반상식

다. 친교, 문화 프로그램 : 매월 1회 이상 실시. 영화나 연극, 뮤지컬, 전통문화 감상, 각종 국내 자원봉사활동, 밤따기, 언어잡기, 명절프로그램 진행.

5) 하늘꿈학교

고려신학대학원과 연계되어 장소를 제공받고 있으며, 중입·고입·대입의 세 과정

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탈북청소년들에 맞는 특성화교육은 나이에 비해 학년과정이 늦어 진행하지 못하고 각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하여 검정고시만을 위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담임제로 각반 담임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기숙사가 따로 있어 각 층에 교사가 함께 숙박한다. 학칙과 생활수칙이 있어 상벌을 주기도 한다.

가. 검정고시교육

중입, 고입, 대입의 3개반으로 나누어 검정고시 전과목을 교육.

나. 특별교육 : 상담, 동아리활동, 예배, 아침운동, 개인과외, 야간자율학습, 텃밭 가꾸기, 영어회화, 힙합, 사물놀이, 인성교육, 미술치료 등

4. 복지관 프로그램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가. 무지개 학교

노원구 거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남한의 학교 생활 및 학업내용 적응을 돕는다. 현재 15명의 탈북청소년들이 이용중임.

① 교육사업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 집단학습, 1:1학습지도.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 vision 세우기 : 진로상담, 진학상담을 통한 개인별 진로지도 실시

② 상담사업

- 전문 상담 사례 관리
- 정서상담 서비스 : 탈북 과정상의 외상(trauma) 및 남한사회 적응상의 어려움이나 고민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전문상담 실시.

③ 사회적응 지원사업

- 여가·놀이문화 습득 : 컴퓨터, 태권도, 피아노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취미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 격월로 연 6회 아동대상 야외활동 프로그램 및 분기별 연 4회 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양한 남한의 문화를 체험함.
-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습득
-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형성 : daum.net 상의 cafe운영 및 버디버디 정팅을 통한 친밀감 형성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

④ 연계 자원 육성 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 전문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 대상 아동·청소년의 가정과 의사소통

나. 스마일 하우스

20세 미만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도교사 1인이 24시간 함께 상주하며 생활함. 입소 비용은 월 100,000원이고, 총 7명의 입소자가 있었고 3명 퇴소, 현재 4명이 상주.

① 보호 서비스

- 보호 : 단기보호 / 중기보호 / 장기보호
- 숙식 및 의류, 생필품 등 제공
- 의료 서비스 제공 : 초기 건강관리 및 체력보강 및 질병치료, 병원 연계.

② 상담서비스

- 상담사업 : 생활상담 / 진로상담 / 학교교사 상담
- 각종 검사 (입소 초기) : MBTI / 심리검사 full battery / 진로·적성검사
(전문기관의뢰)

③ 교육서비스

- 학습지도
- 기술교육
- 전문 프로그램 : 진로탐색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성교육, 미술·원예치료 프로그램
- 특기적성교육

④ 취업 지원 서비스

- 취업지도 : 구직활동 지도 / 취업 지원(아르바이트 등)
- 취업기관 관리 : 보호자로서 취업처에 대한 관리

2) 한빛복지관

문화적 이질감 및 사회부적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약 20명이 있다. 대상자와 담당자간 관계형성을 위한 중점 프로그램으로 학습지도와 문화체험이 있다.

1. 방치된 청소년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
2.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집단 지도 :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 난이도를 과목별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도한다.
3.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불안요인 해소
4. 집단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킴.

5.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 경기관람, 공연관람, 가족캠프 등을 열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앞으로 미디어 교육 및 영상작업프로그램을 계획중인데 대중매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직접 영상매체를 만들고 작업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질 계발, 다양한 사고 및 가치관 수용을 돕는다.

5. 공동체 프로그램

1) 다리공동체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재단이다. 총 10명의 탈북청소년들이 있고 대부분 인근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방과 후 다리공동체의 자원활동가들로부터 학습지도를 받는다. 또 인간 관계의 원만화와 인성 교육을 위해 홍도 기행, 제주도 기행, 소록도 기행 등의 문화 체험을 가지고 있다. 2002년부터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셋넷교실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탈북청소년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탈북청소년들이 외국인 노동자센터, 강원도 수해지역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봄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열등감, 고립감을 최소화하게끔 하고 있다.

2) 마자렐로센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가 아동·청소년 직업훈련시설인 마자렐로센타에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입소하게 함으로써 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총 26명의 아이들이 정착을 위한 학업을 목적으로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 또래의 남한 친구들과 혼합 치료 공동체를 이루며 상호 협조를 통하여 자존감을 키우고 생활 교육을 돕는다.

- 학원등록, 검정고시 등의 교육적 기반을 돕는다.
- 미용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술·기능을 가르쳐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다.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금명자(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공동연구자 : 김동민(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권해수(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이소영(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이희우(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인 쇄 2003년 12월 일
발 행 2003년 12월 일
저 자 한국청소년상담원
발행인 이 혜 성
발행처 한국청소년상담원
주 소 ☐☐☐☐-☐☐☐☐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홍진빌딩내)
전화 (02)2253-9344
팩스 (02)2253-3818
<http://www.kyci.or.kr>
인쇄처 서진인쇄사 ☎ (02)702-3053

본 보고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제할 수 없습니다.

ISBN 89-8234-293-1 9330
ISBN 89-8234-002-5(세트)